

1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20.44	↑ 코스닥	865.98
	(+23.86)		(+9.73)
↓ 금리 (연이자율)	3.031	↓ 환율 (원/달러)	1275.00
	(-0.015)		(-9.10)

창간 20주년

# metro 경제

[뉴스]  
최저임금 2라운드  
노사 high가에 이견  
02



구독료: 월 15,000원 / 1부 8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metroseoul.co.kr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尹, 한동훈 임명 강행 여야 대치 격화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은 17일 “대통령은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18개 부처 가운데 2곳을 제외한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 2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보류했다.

한동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일 각 열렸으나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한 후보자의 자녀 스펙 관련 의혹, 편법증여 의혹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그리고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끝나자 이들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날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총 6명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만 공석으로 남았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향후 정국은 ‘강대강’ 대치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규제 없는 ‘라방’ 활개... 딜레마 빠진 유통가

(라이브방송)

유통업계 ‘라방’ 뜨거워 감자 라방 관련 제도·규제 전무해 실적위해 우후죽순 뛰어들어 상품 품질·이해 왜곡 등 우려

10조원의 시장, ‘라방’ (라이브방송·라이브커머스)이 유통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유통가가 라방을 둘러싼 모순에 빠졌다. 특히 흡소핑과 T커머스가 이렇다.

전통적으로 방송 판매에서 규제를 받아온 이들은 좋은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개를 자제하고 검증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다른 유통사와 신규 라방 플랫폼, 비(非)유통사, 개인은 적극적인 소개와 화면으로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규제의 불균형이 뚜렷한 상황이다. 미디어 커머스로써 라방의 원조

격인 흡소핑과 T커머스까지 대대적으로 라방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하는 가운데, 라방을 둘러싼 유통가의 속내가 복잡하다.

17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유통 대기업들이 규제 밖 라이브 방송 규제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규제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증권사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추정하는 라방 시장 규모는 네이버 쇼핑이 2020년 처음 도입하자마자 3조원대 시장을 형성한 후, 2022년 6조원(추정), 2023년 10조원대다.

현재 라이브방송을 장·단기에 관련 없이 주기적으로 진행 중인 플랫폼과 기업의 수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른바 ‘공룡’으로 불리는 롯데, 신세계, 현대, GS, 카카오, 우아한 형제들 등이 모두 라방을 진행하고 있다. 각 유

통사내 계열사들은 또 각개전투로 라방을 진행 중이다. 유통사 외에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체몰을 통해 라방을 진행했다.

대기업 유통사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라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한 목소리로 라방 관련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라방 상품 품질은 물론 라방 중 상품 이해를 왜곡시킬 수 있는 소개를 조심한다고 주장하며 라방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라방을 새로운 커머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라방은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고객을 불러오는 효과가 어느 커머스보다 강력한 편”이라며 “라방 개시 이후 우리 기업은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매출액이 라방으로 유입된 2030세대 고객으로 총매출액은 것 뿐만아

니라 중년 이후 세대까지 ‘젊은 이미지’를 통해 유입시키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라방이 최근 각 플랫폼 간 경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본다. TV에서도 라방 시청과 채팅 참여가 가능한 요즘이다”라며 “각 커머스의 본질도 있지만 고객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라방을) 진행할 부분이고, 과정에서 기술력이 발달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자신하는 만큼 이들의 라방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7월 식약처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등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CJ제일제당·하림·티몬 등 업체 16곳)이 적발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둔촌주공 재건축 타워크레인 철수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타워크레인 해체를 시작했다.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까지 현장 내부의 타워크레인을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멈춰버린 크레인 모습. /뉴스1

## ‘테라·루나사태’ 불똥... 게임사 블록체인·P2E ‘신뢰 균열’

컴투스·넷마블 등 가상화폐 급락 차세대 먹거리 P2E 게임도 비상

게임업계가 루나와 테라 가치 폭락 사태에 일동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 게임사들은 개발하고 있는 P2E 게임이나 가상화폐 등의 신사업에 악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 가치 폭락 사태 파장이 게임사로까지 번지고 있다. 컴투스, 넷마블, 위메이드 등 다수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시켰지만 지난 6일부터 대폭락하기 시작했다.

UST(테라)와 LUNA(루나)는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0위 안에 위치할 정도로 성장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가상자산으로 손꼽혔다.

하지만 지난 8일 1달러 가치를 유지 하던 UST의 가치 연동이 깨지면서, LUNA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됐다.

같은 날 LUNA는 약 72달러에서 약 59달러까지 하락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올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P2E분야를 꼽으면서 해당 사업을 확대 시키고 나섰지만 가상화폐 가격 폭락으로 발행한 코인의 가치는 급락하고, P2E 게임사업 구축

에는 비상이 걸렸다. 가상화폐 정보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컴투스 그룹의 블록체인 게임에 사용중인 C2X코인은 지난 15일 기준 1080.3원으로 테라/루나사태 전 날인 8일 기준 2773.4보다 61.1% 급락했다. (8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격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한진그룹 (4면)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상희 측 “고민 끝에 국회의장 불출마... 지선 승리가 중요”  
▲ 이준석, 23일 봉하마을행...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참석 /사진 뉴스1

▲ 민주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토론회 불참... 시민 무시”  
▲尹대통령, 2022 다보스포럼 특사로 나경원 전 의원 파견



▲ 강용석, “윤대통령과 통화는 사실... 선거 개입 없어” /사진 뉴스1  
▲ 이낙연, 文 사저 시위에 “정당한 의사 표현 아냐... 자제 요망”